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8일

CUOMO 주지사,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1주년 기념일에 조기 게양을 지시하고 묵념의 시간을 갖기를 요청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발생한 초강력 태풍 Sandy로 목숨을 잃은 61인의 명복을 기리며 2013년 10월 29일에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에 폭풍 해일이 처음 발생했던 그 시간 즈음인 10월 29일 오후 8시에 맞춰 묵념의 시간을 갖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는 수 십년 만에 우리 뉴욕주를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뉴욕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61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폭풍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폭풍으로 사망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 생명의 위협에 빠졌던 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기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인명 손실 외에도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한 물질적 피해 역시 실로 엄청났습니다. 30만채의 주택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었고, 롱아일랜드의 유틸리티 이용 고객 90%를 포함해 2백만명의 사람들이 단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엄청난 침수가 발생하여 교통망에 피해를 주었고, 주방위군 중 2,000명 이상이 뉴욕에 배치되어 폭우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피해를 평가하는 지역 당국의 활동을 거들어주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